

터키의 대표 녹색 기업 탐방

IZAYDAS

IZAYDAS는 터키 이즈밋(Izmit) 시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터키 최초의 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이다. 2010년에 21,334톤의 폐기물을 소각해 13,847,100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또한, 22,286톤의 유해폐기물, 442,632톤의 생활폐기물, 54,259톤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였다. 1997~2010년 기간 동안 215,631,326kg의 유해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126,609,000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중 45,624,260kWh의 전력을 터키송전공사(TEIAS)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자체 전력으로 사용하였다.

IZAYDAS의 주요 활동은 하루 1,500톤의 생활폐기물처리, 이즈밋 만을 운행하는 연간 12,000대의 선박폐기물처리, 의료폐기물 처리, 토목/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제조업이 밀집해 있는 이즈밋 인근의 폐기물을 주로 처리한다. 산업용 유해 물질의 경우 터키 전역에서 수집되어 소각 혹은 매립 처리된다. IZAYDAS는 주로 폐기물 소각 및 메탄가스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여, 50%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터키 정부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스탄불무역관은 IZAYDAS를 직접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Muhammet Sarac를 면담하였는데, 고형폐기물처리시설(Solid waste elimination facility)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고 언급하였다. IZAYDAS는 1996년 설립 시부터 독일의 기술(LURGI 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밝혔다. 한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는 다른 국가의 기업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다. Muhammet Sarac 대표이사는 이즈밋에는 이미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가 진출하여,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기업이 IZAYDAS에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분야 : 폐기물 처리 (Purifying, incinerating, recycling of wastes and residues)
- 설립연도 : 1996년
- 직원 수 : 267명
- 홈페이지 : www.izaydas.com.tr
- 매출액 : 약 US\$3,100만
- 위 치 : 터키 이즈밋(Izmit) 시 (이스탄불에서 100km 거리의 공업 도시)

